

중소건설업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유망시장 조사 보고서(IV)  
- 앙골라 및 중앙아시아 국가 -

2007. 8.

해외건설활성화 TFT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차 례>

I. 앙골라 .....	1
II. 키르기즈 .....	18
III. 타지키스탄 .....	25
IV. 투르크메니스탄 .....	30
V. 아제르바이잔 .....	34
VI. 우주베키스탄 .....	49

# 제1장 앙골라

## 1. 기본 사항

- 앙골라는 서남 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며 면적 124만 7천 km<sup>2</sup>(한반도의 5.6배), 인구 1천4백30만명(2005년)임.
- 수도는 루안다(Luanda)이고, 공용어는 포르투갈어이고, 화폐 단위는 Kwanza(Kz)임.
- 정치체제는 대통령중심제이며 친서방 비동맹 외교 정책을 펴고 있음.
- 일산 13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 수출하여 나이지리아, 리비아에 이어 아프리카 제3위의 석유생산국이며, 석유 이외에도 다이아몬드, 철광석, 금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임.
- 내전 이후 고유가 지속 및 산유량 생산 증가에 힘입어 앙골라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1975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후 식민지 시절 무장 독립 단체였던 MPLA(현 정부군), UNITA(앙골라 독립 민족 동맹)이 정국 주도권을 놓고 27년간 내전을 벌였으며, 2002년 2월 반군지도자 사빔비의 사망을 계기로 내전이 종식되면서 현재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음.
- 2005년 GDP는 243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1,640 달러임.

## 2. 경제 현황

### (1) 일반 경제

- 오랜 내전으로 국토가 파괴되고, MPLA의 국가계획경제 실패, 과도한 외채,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는 극도로 악화되었으나, 석유, 다이아몬드, 철광석 등 대규모 자원 매장으로 경제발전의 잠재력이 높음.
- 2002년 7월 전후 복구사업을 위한 수정예산안이 앙골라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국제기구와 원조공여국의 대규모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나, 정부의 투명성 및 개혁의지 부족, 부정부패 만연이 전후 복구사업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 국내 제조업 기반이 약한 국내 사정으로 거의 모든 물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외환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므로 대미 달러 환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음.
  - 2002년 평균 환율이 1달러 당 52.0Kz이던 것이 2006년에는 1달러 당 80.3Kz로 상승하였음.
-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9%를 기록하였고, 2004년 12.2%, 2005년 19%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음.
- 신규 유전 발굴에 따라 앙골라 내 원유 생산량은 125만 배럴(2006년 10월)에서 2007년에는 180만 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인프라 복구 사업 및 외국인 투자 유입 등으로 앙골라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0년대 들어 계속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음. 2003년에는 정부의 엄격한 공공요금 인상 통제로 10년만에 처음으로 두자리 수(94.9%)로 하락하였고, 2004년에도 Kwanza화 강세 및 정부의 물가 통제로 전년의 절반 수준인 37.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재정수지는 원유 개발을 위한 지출 증가로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석유를 담보로 한 외채도입으로 보전하고 있음.

〈표 I-1〉 주요 국내 경제지표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e)	2006년(f)
경제성장률	15.3	4.7	12.2	19.1	11.4
재정수지 / GDP	-6.0	-6.0	-4.0	-4.5	-5.0
소비자물가상승률	108.0	94.9	37.3	23.4	23.9

자료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 앙골라의 산업구조는 석유산업이 GDP의 48.3%, 총수출의 89.7%, 정부재정의 75%를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표 I-2〉 앙골라 재정수입 구성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f)
총재정수입	4,586	4,029	4,367	5,186	7,267
석유수입	4,098	3,209	3,349	3,892	5,606
비석유수입	488	820	1,017	1,294	1,661

자료 : IMF

- 경상수지는 외채상환과 석유 메이저들의 이익금 본국 송금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해왔으나, 2004년 이후 원유수출 증가, 국제유가 상승, 상품수지 등에 힘입어 흑자로 전환하여 2005년에는 43억 2천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함.
- 국제유가 급등과 석유 생산량 증대로 2005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264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상품수지 흑자도 전년대비 58.2% 증가한 18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03년 기준 품목별 수출실적은 석유제품 89.7%, 다이아몬드 8.3%, 정유제품 1.4% 등으로 자원 수출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함.

### 〈표 I-3〉 앙골라 경상수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e)	2006년(f)
경상수지	-150	-719	686	4,324	4,600
경상수지/GDP	-1.5	-4.9	4.3	18.7	13.9
상품수지	4,568	4,028	7,644	18,286	21,300
수출	8,328	9,508	13,475	26,450	30,700
수입	3,760	5,480	5,831	8,164	9,400

자료 : EIU

## (2) 부존자원 및 개발현황

### 가. 원유

- 국영석유회사인 SONANGOL을 중심으로 원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미국, 스페인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현재 원유 수출은 전 외화 획득원의 90%를 차지함.
- 2006년 10월 현재 하루 125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8년 200만 배럴로 증산하는 계획을 추진 중임.

### 나. 임업

- 까빈다(Cabinda)지역과 무쉬꾸(Moxico)지역에 풍부한 삼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동안 UNITA 반군의 게릴라 활동으로 채벌이 중지되었으며, 현재 벌목 장비 부족과 도로, 수송 차량 등의 미비로 본격적인 개발이 지연되고 있음.
- 따라서, 정부도 도로망 등 인프라 구축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

## 다. 어업

- 앙골라 어장은 서부 아프리카에서 비교적 개방되지 않은 어장으로 남아있으며, 전 해역에 걸쳐 어족 자원이 풍부하여 경제성이 있음.
- 러시아, 스페인에 이어 중국의 어업 진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어획고 및 순이익이 당초 기대 수준에는 못미치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음.

## 라. 다이아몬드

- 앙골라는 세계 다이아몬드 총 생산량의 5~8%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영 다이아몬드 채광회사 CIMANG이 벨기에와 합작으로 개발 추진 중임.

## 3. 정치·사회 동향

- 1979년 이래 집권해 온 산토스 대통령은 2002년 9월 총선에서 재집권하였으며, 집권 MPLA(앙골라 해방 인민 운동)이 전체 220석 중 129석을 차지하여 정치는 안정적인 편임(최대 야당인 UNITA(앙골라 독립 민족 동맹)는 70석에 불과함).
- 75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후, 식민지 시절 무장 독립 단체였던 MPLA(현 정부군), UNITA(앙골라 독립 민족 동맹)이 정국 주도권을 놓고 27년간 내전을 벌였으며, 2002년 2월 반군지도자 사빔비의 사망을 계기로 내전이 종결되면서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고 있음.
- 또한, 석유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카빈다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활동해온 카빈다해방전선(FLEC)도 2002년 대부분의 인사들이 투항함에 따라 사회가 한층 안정되고 있음.

- 내전이 사실상 종결되면서 주변국으로부터 귀국한 남민 100만명과 국내 내전으로 발생한 이재민 300만명의 안정 대책이 사회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미국과는 원유 공급을 매개로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지도력을 바탕으로 콩고인민공화국 정권 교체 및 내전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기니만 연해 접경국가들에게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중서부 아프리카의 패권국으로 등장하고 있음.
- 2003년에서 2004년까지 UN 안정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남아프리카 지역의 중심국으로 역할을 과시함.
- 경쟁관계에 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2005년 투자보장협정 체결 및 전기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도 체결하였음.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우리나라와는 1992년 1월 6일 국교를 수립하였고(북한과는 1976년 4월 15일 국교 수립), 1993년 경제과학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음.
- 우리나라는 2004년에 유조선 등 18억 달러를 수출하여 석유 등 1억 4천만 달러를 수입하였음.
- 2006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 앙골라 해외직접투자는 5건, 500백만 달러 규모임.



〈표 I -4〉 우리나라의 대 앙골라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주요 품목
수출	19	25	1,814	1,514	1,037	철강제품, 자동차류, 선박
수입	178	268	137	1	219	석유, 기계류
합계	196	292	1,952	1,515	1,156	

자료 : KOTIS, 한국무역통계

## 5. 건설업 제도

-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공사 및 도시부(Ministry of Public Works & Urban Affairs)」에서 발급하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함.
- 외국 기업은 공공 및 민간 공사 수주시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참여가 가능함.
-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관인 공식 신청 서류
  - 회사등록서류(현지 회사법에 기초한)
  - 국가통계국 등록 서류
  - 관리인 및 주주의 비범죄인 증명
  - 세금 완납카드
  - 회사 공용인 리스트, 현지 공용인 리스트
  - 엔지니어 전문가 work permit 서류
  - 기술 장비 보유 리스트
  - 사무소 및 장비사업소와 기타 관련 사무소 위치
- 등록 처리 기간은 통상 3~5 개월 소요됨.

## 6. 앙골라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 (1) 현황

- 대규모 시설발주가 예상되고 있으나, 실제 발주되거나 시행되는 프로젝트는 아직 많지 않으며, 대인지뢰 등으로 인해 외국 건설업체가 선불리 앙골라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인프라 발주물량은 약 5천만 달러 규모에 불과하며, 이 또한 기진출한 포르투갈, 브라질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고, 일부 남아프리카공화국 업체들이 주택사업 및 오피스빌딩 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으로 시급히 추진 중인 인프라 개보수 사업은 식민 지배국이었던 포르투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자체 재원을 통한 전후 복구사업은 추진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임.
- 현재까지는 포르투갈, 브라질계 등 2~3개 회사가 주요 관급공사를 맡아 시공 중이나 최근 중국계 건설회사가 진출하여 활동 중이나 아직 소규모 민간공사에 국한되고 있음.

### (2) 전망

- 앙골라는 27년간에 걸친 내전으로 전국토가 파괴되고, 국가계획 경제의 실패와 경험 부족으로 경제 또한 극도로 파탄난 상태임.
- 내전 중 교량, 도로, 철도, 공항, 발전소 등 국가기반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으나, 종전협정 체결 후 전후 복구 사업을 추진 중임.
- 그러나,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들 가운데 나이지리아에 이은 제2의 산유국이며, 1일 13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고, 다이아몬드 생산량이 세계 4위이며, 철광석 등 지하자원도 풍부함.

- 이러한 석유, 다이아몬드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현재 국가 재건 사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향후 건설시장의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내전에서 벗어 난지 얼마 안 되어 사회 불안 요소도 잔존하고 있음.

### (3) 외국업체 진출 현황

- 현재 앙골라에는 포르투갈, 브라질 업체가 400여년의 식민통치 기간 동안 축적된 경험 및 언어 상의 이점을 내세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임.
- 포르투갈계 건설사는 Texieria Durate, Soares da Costa, Mota & Companhia, Engil 등 4개사가 진출하고 있으며, 포르투갈 건설전문 그룹인 Tubas Vouga가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하고 있음.
- 브라질계 건설사는 Conatruora Odebrecht사로서 Capanda댐 등 수력발전소 건설 등 대형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건설전문 그룹인 Group Five, Grinaker-LTA Ltd 등의 진출이 활발한 상태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아프리카 관행 및 제도를 잘 알고 있어 진출에 유리한 입장임.
- 현재 중국 업체는 자국 정부의 무상주택 원조사업의 단순 시공사로 진출하였으나 현재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사업범위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음. Hina Jiangsu International Econ-Tech. Corp.사가 대표적임.
- 이외에도 앙골라 정부의 친미 성향과 미국 석유 메이저들의 활발한 현지 투자로 ABB Lummus, Gloval Industries 및 Halliburton KBR 등 미국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진출이 활발함.

- 현재 미국 석유메이저들의 앙골라에 대한 투자금액이 약 2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

#### (4) 우리나라의 건설 진출 현황

- 현재 우리나라 업체가 앙골라에서 수주한 수주 누계는 47건 6억 8,982만 달러 규모임.
- 설계분야에서는 2002년부터 「공간종합건축」이 국영석유회사 SONANGOL 본사 건물, 컨벤션센터, 오피스빌딩, 주상복합빌딩 등의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시공분야에서는 남광토건이 컨벤션센터, 오피스빌딩, 주상복합 빌딩 등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 중에 있음.
- 현대중공업은 Exxon Mobil로부터 FPSO(부유식 원유 생산/저장시설) 설비를 8억 달러, 턴키방식으로 수주하였음.

〈표 I-5〉 우리나라 업체의 공사수주 현황

(단위: 천달러, 건수)

구 분	2002년 이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금액	0	4,216	5,370	252,368	387,851	40,015	689,820
건수	0	1	4	12	18	12	47

자료 : 해외건설협회

## 7. 공사수행 환경

- 가설공사부지: 현장 가설 환경은 인구에 비하여 넓은 영토를 갖고 있으며, 개발 시작 단계이므로 도심지 공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현장 주변의 유흥지를 가설공사 부지로 활용할 여지가 많음.
- 용수, 전기 연료 등: 산유국으로써 전기 요금이 매우 저렴하나 발전시설 부족 및 전력선의 용량이 부족함.
- 기자재 조달 환경: 현지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는 거의 없으며, 주로 수입에 의존함.
- 장비: 건설중장비는 Caterpillar 등 외국산 장비를 주로 사용하고 차량은 현대, 대우, 기아, 쌍용 등 한국산이 외국산 차량과 함께 널리 사용됨.
- 자연환경: 국토의 대부분이 1,000m 이상의 고산지대이며, 200m 이하는 대서양에 면한 1,600 km 구간에서 볼 수 있음.
- 기후: 열대, 온대, 아열대가 공존하며 건기는 5-10월이며, 우기는 11-4월임.
- 운송 환경: 수입 자재의 아프리카 대륙을 통한 육상 운송은 차량 탈취 등의 위험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루안다 등 항구까지 해상 운송 후 내륙 운송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차량이 주요 운송수단이나 도심지는 교통혼잡이 심하고, 시외곽은 비포장 도로가 대부분임.
- 통신환경: 통신설비는 일반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은 모뎀을 사용하므로 매우 느림.

## 8. 외국인 투자 절차 및 사업 형태

### (1) 투자 절차

- 외국자본으로 앙골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국립민간투자청(ANIP)에 투자자의 신분, 법적 성격 및 계획된 투자에 대한 서류와 함께 투자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앙골라는 국내 및 해외 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국립민간투자청(ANIP)을 설립하였음.
  - 국립민간투자청(ANIP)은 투자자를 유일한 중개기구로서, 관세 혜택에 관한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임.
  - ANIP는 기술 및 법률 서비스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시장 조사를 실시해 주고 있음.
- 투자계획 승인은 미화 5만 달러에서 5백만 달러까지는 국립민간투자청(ANIP)에서 심의하여 승인하고 기간은 15일 이내이며,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의 규모는 내각에서 심의하여 승인하고 기간은 30일 이내임.
- 투자가 승인되면 국립민간투자청(ANIP)은 민간투자등록증(CRIP: Certificado de Registo do Investimento Privado)을 발급받고, 이 사본은 앙골라중앙은행(Banco Nacional de Angola)에 보관되며 이는 교역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신용기구를 통해서 자본의 유입을 허가하는 효력을 발생시킴.
  - 앙골라 중앙은행은 요청서가 접수되면 최대 15일 이내에 거래를 허가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5일 이내에 통고함.
- 앙골라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국인 투자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세무등록증(Identificacao fiscal)과 번호를 취득하기 위해 재정부(Ministerio das Financas)에 등록절차를 밟아야 함.

## (2) 사업형태

- 외국인 투자자가 앙골라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서 대표사무실, 지점 또는 앙골라 법에 의한 회사를 세워야 함.

### 가. 대표사무실

- 대표사무실은 외국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독점적인 목적을 갖고 있으며 앙골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
- 그러나, 대표사무실은 자체적인 명의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법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고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6명임.
- 그러나, 이 구조는 다양한 제약이 따르므로 앙골라에서 정기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나 규모가 큰 투자의 경우에는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님.

### 나. 지점

- 지점은 앙골라에서 외국 기업을 대표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앙골라 법에 적용받는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앙골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지점은 법인체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체 성격을 가짐.

### 다. 법인 회사

- 앙골라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법에 명시된 5가지 형태의 기업형태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함.

- 주식회사(Sociedade Anonima)
  - 쿼타제회사(Sociedade por Quotas)
  - 단순합자회사(Sociedade em Comandita Simples)
  - 합명회사(Sociedade em Nome Completo)
  - 주식형합자회사(Sociedade em Comandita por Accoes)
- 어느 형태를 취하든 공동기업주의 복수 형태를 요구함.

## 9. 투자보호 정책

### (1) 기업에 대한 보호

- 앙골라는 모든 민간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앙골라 법정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해당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보장함.
- 민간투자의 소유 자산이 중대한 이유나 타당한 이유로 몰수되는 경우, 최고 공권력인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지불할 것을 보장하고 적용 가능한 법규정에 따라 액수는 결정됨.
- 개인투자자들의 재산은 국유화되지 않음.
- 예외적으로 국유화를 초래하는 정치와 경제 제도의 변동상황에서는 국가는 금전적으로 공정하고 빠른 보상을 보장함.
- 국가는 민간투자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와 기업에 대해 직업적, 금융적 그리고 상업적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보장함.
- 현행법상에서 민간투자자들에게 허용된 권리는 앙골라 국가가 포함된 조약이나 협약의 결과로 초래된 사항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함.



## (2) 이윤의 송금

- 투자자는 환율법에 의해 규정된 조건으로 분배된 배당금과 이윤을 회사나 자체 자본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 분할상환금과 세금을 공제하고서 외부로 송금할 수 있음.
- 투자부문의 재고정리 상품, 배상 상품, 로얄티 또는 기술이양과 연계된 간접적인 투자의 보상에 대한 이윤을 송금할 수 있음.
- 또한, 투자자는 해당 세금을 공제하고서 민간투자 계약에서 정해진 일정 액수를 송금할 수 있음.
- 단, 다이아몬드, 석유 그리고 금융기관 부문에서의 투자는 특별법에 정해진 바에 의함.

## 10. 투자촉진 인센티브 정책

- 양골라는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산업분야(targeted industry areas)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에 대해서 세금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
- 특정한 산업분야(targeted industry areas)는 다음과 같음.
  - 농축업(farming and animal breeding)
  - 가공산업(processing industries)
  - 어업과 관련 부문(fishing and its derivatives)
  - 건설업(civil construction)
  - 보건 및 교육(health and education)
  - 에너지와 물(energy and water infrastructure)
  - 도로 및 철도(road and railroad)
  - 항만 및 공항(ports and airports)

- 통신(telecommunication)
  - 창고 및 운수장비(heavy cargo and passenger equipment)
-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지역을 A, B, C 구역으로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달리하고 있음.
- A구역(Zone A): 루안다(Luanda)주, 벵겔라(Benguela), 우일라(Huila), 까빈다(Cabinda) 주의 주도 및 로비투(Lobito) 주의 도시지역
  - B구역(Zone B): 벵겔라(Benguela), 우일라(Huila), 까빈다(Cabinda) 주의 그 밖의 도시지역, 판자 노르뚜(Kwanza Norte), 판자 쏘(Kwanza Sul), 벵구(Bengo), 우이지(Uije), 룬다 노루뚜(Lunda Norte) 주 및 룬다 쏘(Lunda Sul) 주
  - C구역(Zone C): 우암부(Huambo), 비에(Bie), 무쉬꾸(Moxico), 판두꾸방고(Cuando Cubango), 꾸네누(Cunene), 나미브(Namibe), 말란지(Malenge) 및 자이르(Zaire) 주

#### (1) 관세 및 수수료 면제

- 구역별로 일정한 기간 동안(아래 <표 I-6> 참조) 투자활동에 소요되는 중장비 및 기술차량(heavy and technological vehicles) 등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수수료가 면제됨. 단, 인지세와 일정한 수수료만 부과됨(「조세 및 관세 인센티브에 관한 법률(law on tax and customs incentives to private investment)」 제9조).
- 만약 투자활동에 소요되는 중장비 및 기술차량(heavy and technological vehicles) 등 물품이 중고인 경우에는 관세 및 수수료가 면제되는 기간이 반으로 줄어 듦.
- 다른 상품의 생산 활동에 직접 연관되어 있거나 소비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관세를 면제함. 단, 인지세와 일정한 수수료만 부과됨.

## (2) 산업세 면제

- 구역별로 일정한 기간 동안(아래 <표 I-6> 참조) 투자활동에서 생긴 이윤에 대한 산업세(industrial tax, 법인소득세)가 면제됨(「조세 및 관세 인센티브에 관한 법률(law on tax and customs incentives to private investment)」 제10조).
- 투자프로젝트를 위한 하도급자의 산업세도 구역C에서는 면제됨.

## (3) 자본이득세 면제

- 구역별로 일정한 기간 동안(아래 <표 I-6> 참조) 파트너에게 부과되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가 면제됨(「조세 및 관세 인센티브에 관한 법률(law on tax and customs incentives to private investment)」 제12조).

## (4) 투자경비 비용인정

- 도로, 철도, 통신, 물공급 및 근로자, 그의 가족과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0%까지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감면할 수 있음.
- 또한, 직업훈련 관련 지출과 문화 부분에 대한 투자와 앙골라 작가와 창작인들의 예술작품 구입은 비용 처리되어 세금에서 감면될 수 있음(「조세 및 관세 인센티브에 관한 법률(law on tax and customs incentives to private investment)」 제11조).

<표 I-6> 앙골라의 투자구역별 기본 인센티브 기간

개발구역 (development zones)	관세 및 수수료 (duties & fees) 면제	산업세(industrial tax) 면제	자본이득세 (capital gain tax) 면제
A구역	3년	8년	5년
B구역	4년	12년	10년
C구역	6년	15년	15년

## 제2장 키르기즈

### 1. 국가 개황

국가명	키르기즈 (Kyrgyz Republic)
위치	중앙아시아 대륙의 중앙부, 북은 카자흐스탄, 서는 우즈베키스탄, 남서는 타지키스탄, 동은 중국의 위구르 자치구와 접경
면적	199천 km <sup>2</sup> (한반도와 거의 동일)
기후	대륙성기후 ○ 7월 최고기온 38℃, 1월 최저기온 -12.5℃ 연간강우량 : 약 400mm
인구	510만명(2004)
산업구조	농림업 36.6%, 제조업 21.1%, 서비스 42.3%(2004)
수도	비슈켄(Bishkek, 83만명)
민족	80여개의 다민족 국가 : 키르기즈인(64.9%), 러시아인(12.5%), 우즈베크인(13.8%)
언어	키르기즈어, 러시아어(이상 공식어), 소수민족어
종교	회교(수니파, 75%), 러시아정교(20%), 기타(5%)
화폐단위 및 통화, 환율	Som, 1\$(USD)=40 Som(2006)
시차	4시간 느림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재외공관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

## 2. 경제 현황

GDP	24억달러(2005)
1인당 GDP	471달러(2005)
경제성장률	-0.6%(2005)
소비자물가 상승률	5.2%(2005)
환율(\$당)	1\$(USD)=41.3 Som(2005)
경상수지	-191백만달러(2005)
상품수지	-429백만달러(2005)
수출(\$)	686백만달러(2005)
수입(\$)	1,115백만달러(2005)
외환보유액	570백만달러(2005)
총외채잔액	2,100백만달러(2004)
산업구조	농림업 36.6%, 제조업 21.1%, 서비스 42.3%(2004)
주요 수출품	귀금속, 광물류, 직물
주요 수입품	광물, 기계·설비, 화학
주요부존자원	석유, 석탄, 안티몬, 수은, 금, 수력자원
경제적 강점	낮은 물가상승률
경제적 약점	낙후된 사회간접자본, 빈약한 부존자원, 높은 대외원조 의존도, 취약한 금융부문

자료 : 한국 수출입 은행

## 3. 정치 현황

독립일	1991.8.3(구소연방)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Kurmanbek Bakiyev 대통령
의회	단원제(75석)
정당	공산당, 민주세력연합, 조국행동당
국제기구가입	ADB, CIS, IMF, UN, World Bank(WTP가입 추진)

자료 : 한국 수출입 은행

## 4. 건설업 현황

### (1) 2006년 키르기즈 비슈케크 건설업 현황

(자료출처: <http://www.bisnis.doc.gov/bisnis/bisdoc/0609KGConstructionSector.htm>)

- 키르기즈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에서는 지난 4~5년 동안에 걸쳐 광범위한 주택 건설이 이루어 졌음.
- 신축 아파트 증가는 2002년 전년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연 평균 3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해 왔음.
- 비슈케크 총건설 대비 주택건설 투자 규모는 2002년 6%에서 2005년 26%로 증가하였고(액수로는 75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증가)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70개 이상의 고급 주택 프로젝트가 지난 4년 동안에 걸쳐 비슈케크에서 수행되었고, 비슷한 수준의 프로젝트가 계획 중이거나 이미 진행 중임.
- 주택 가격 역시 지난 4년 동안 상승하였음. 2002년  $m^2$ 당 200달러에서 현재는 500~600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소비에트 시절 아파트 가격은  $m^2$ 당 평균 450달러 선이었음.
- 2006년 9월 현재 새로운 아파트는 미완공일 경우  $m^2$ 당 430~600달러에서 거래되며, 완공 아파트의 경우에는 650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짐.
- 신축 빌딩에 각종 설비 완비 아파트는  $m^2$ 당 평균 80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데 최고 1,100달러를 기록하기도 함.
- 새롭게 시장에 등장한 독신용 주택은 신규 아파트와 동일한 가격 대에서 거래되고 있음.

- 토지 가격이 상당히 오르면서 독신용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표 II-1〉 바슈케트의 주택가격과 건설비용

(단위 : \$/sq.m)

항 목	가 격
Up-Scale Apartment(unfurnished)	\$430 ~ \$600
Up-Scale Apartment(furnished)	\$500 ~ \$650
New Single-Family Houses	\$550 ~ \$650
Old Soviet-Era Apartment(average)	\$440 ~ \$460
Construction Cost	\$320 ~ \$400
Finishing	\$65 ~ \$140

- 업계 전문가들은 신규 건설 빈도가 지난 수년 동안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서 과잉 공급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지적함.
- 대다수 건축업체들은 2-3년 전처럼 수월하게 아파트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음.
- 애널리스트들은 건설 프로젝트가 10~15%라는 낮은 순익 마진을 보이기 때문에 더 우수한 사업 계획과 스케줄링을 갖추어야 한다고 진단함.
- 대다수 건축업체들은 프로젝트 조달에 대출을 활용하는데, 이는 프로젝트를 그만큼 더 위험하게 하며, 지난해 뛰어난 컨설턴트 확보가 절실했던 이유가 되기도 함.
- 이코노미클래스 주택 개발은 현재로는 바슈케크에 존재하지 않음. 키르기즈 정부는 이코노미클래스 복합단지 건설을 개시하고 최근 대한민국 기업에 의한 거대 프로젝트 ‘아르티스-글로벌’(Artis-Global)을 승인했음.
- 본 프로젝트는 온사이트 점포와 육아 시설, 스포츠 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1,400채 아파트 건설이 포함됨. 아파트 잠정 가격은 스퀘어미터당 350달러 선이 될 것으로 추정됨.

- 고급 아파트 및 주택에 대한 판매 가격이 2002년 이래 상승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주택 공간에 대한 임대 가격은 정체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락하기도 했는데, 신규 건축된 주택들이 과도하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임.
- 고급 주택 임대 가격은 월 1,500~3,000달러 선인데, 경우에 따라 4,000~5,000달러도 존재함.
- 아파트 임대 가격은 400달러부터 시작되며 최고 가격은 고급 주택과 마찬가지로 3,000달러 선임. 임대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비슈케크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제한되었기 때문임. 이러한 주택의 주된 수요자는 이들 외국인들임. 비슈케크에 거주하는 대다수 외국인들은 비정부 조직, 대사관, 국제 구호 기관 등 종사자임.
- 비슈케크의 호텔 시장은 2~5성급 호텔들이 갖춰 있음. 하이얏트가 최근 골든 드래곤을 시작했고, 5성급 호텔이 되었음. 기타 주목할 대형 호텔로는 4성급 호텔들로, 아크-케메(Ak-Keme), 실크로드롯지 등이 있음. 5성급 호텔의 연간 객실이용률은 45~50%임. 보다 규모가 작은 호텔들의 경우는 70~75% 선임. 한편 키르기즈스탄의 휴양지인 이시크쿨 호수의 호텔도 주목할 만함.
- 지난 4-5년 동안 비슈케크에는 몇몇 오피스 공간들, A급, B급 비즈니스 센터들이 등장했음. 하이얏트가 최고급 시설로 인정받고 있으며, 스퀘어미터당 월 28 달러 선으로 가장 고가임. 기타 A급 센터로는 도르도이(Dordoi) 플라자가 있으며, 리모델링된 비슈케크 타워 비즈니스 센터도 유명하지만, 새로운 오피스 공간들이 나오면서 B급 센터가 되었음. 오피스 공간 수요는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견고했음. 하이얏트를 제외한 비즈니스 센터 객실 사용률은 100%에 육박함.
- 2002년 비슈케크에 쇼핑몰로는 TSUM과 베타 스토어즈만 존재했지만 이후 4개 쇼핑센터가 들어섰음. 도르도이 플라자 등을 위시한 이들 센터 영업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음. 최근 오픈한 베파(Vefa) 센터는 거대 콤플렉스



로 식료품점 외에 다양한 의류점, 카페, 레스토랑, 돌비 서라운드 영화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음.

- 쇼핑 센터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개별적으로 실망스러운 실적도 발견됨. 쇼핑센터인 실크웨이와 캐러반은 경영상 실책을 안고 있음. 베과 센터의 경우 상층부 대부분 공간을 업무용으로 임대할 계획임.
- 호텔과 오피스 공간, 쇼핑센터에 경영 서비스 제공이 외국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음. 몇몇 신축 쇼핑센터는 이미 계획과 경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외국 등지에서 전문가의 손길을 모색하고 있음. 시공 및 건설업체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긍정적임.
- 이 지역 건설자재는 대체로 유럽, 중국, 러시아에 국한해 거래되고 있는데, 이들 자재 가격이 비싸며 수요는 높은 상황임. 최근 들어 낮은 품질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으며, 기타 국가가 이 상황을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2) 우리나라의 키르기즈 건설 수주건(2건, 74,818천\$)

〈표 II-2〉 우리나라 건설 수주 건수

(단위: 천미불)

구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47,083	-	-	-	-	23,000
건수	1	-	-	-	-	1

## (3) 우리나라 업체가 시공주인 주요 프로젝트

〈표 II-3〉 우리나라 업체가 시공주인 주요 프로젝트

업체	공사명	발주처	공사금액	공사기간
팔인건설	15미크로 라이온 잘-아티스 타운 신축공사 중 형틀/철근/콘크리트 공사	아티스 글로벌 주식회사	23,000천\$	2006.12.15 2008.12.31 (미착공)

#### (4) 국내 기업의 건설진출 현황

- 양국간 실질협력 사업으로는 삼성건설이 2002년 2월 비슈케크-오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카라발타-비슈케크간 80km 도로확장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1998년 한국 Central Asia Group(무역, 놀이시설)이 비슈케크 시내에 대규모 놀이공원을 조성한 바 있음.
- 최근에는 우리 IT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기타 항공운송, 식당, 의류공장, 농장 등 자영업소 10여개가 진출해 있음.
- 우리정부는 1999년 EDCF 차관 1천 2백만 달러를 지원, 키르기즈 수도권 추이주 25개 지역에 45,273 회선의 TDX-10 교환기를 공급설치하여 해당지역 전화적체현상 해소 및 통신서비스를 향상시킨 바 있음.
- 동 EDCF 차관은 금리 연 2.0%, 상환기간 30년(거치기간 10년)로 대출되었으며, 키르기즈측의 이자체불로 2004.12월 연체이자 1.6억원 발생되어 우리 수출입 은행측과 협상이 진행 중임.

## 제3장

# 타지키스탄

### 1. 국가 개황

국가명	타지키스탄 (Republic of Tajikistan)
위치	중앙아시아
면적	143천 km <sup>2</sup> (한반도의 2/3)
기후	대륙성 고산기후
인구	700만명(2005)
산업구조	농업 24.2%, 제조·건설업 28.1%, 서비스 47.7%(2004)
수도	두산베(Dushanbe, 약 56만명)
민족	타지크인(64.9%), 우즈베크인(25.0%), 러시아인(3.5%)
언어	타지크어(공용), 러시아어
종교	회교(수니파 85%, 시아파 5%), 기타 10% 등
화폐단위 및 통화, 환율	Somoni, 1\$(USD)=3.3 Som(2006)
시차	3시간 느림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재외공관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 2. 경제 현황

GDP	23억달러(2005)
1인당 GDP	339달러(2005)
경제성장률	6.7%(2005)
소비자물가상승률	-3.8%(2005)
환율(\$당)	1\$(USD)=3.2 Somoni(2005)
경상수지	-19백만달러(2005)
상품수지	-323백만달러(2005)
수출(\$)	1,108백만달러(2005)
수입(\$)	1,431백만달러(2005)
외환보유액	163백만달러(2005)
총외채잔액	895백만달러(2005)
산업구조	농업 24.2%, 제조·건설업 28.1%, 서비스 47.7%(2004)
주요 수출품	알루미늄, 전력, 면화류
주요 수입품	전력, 알루미늄, 석유제품
주요부존자원	금, 은, 대리석, 우라늄, 갈탄
경제적 강점	풍부한 수력자원, 고품질의 면화생산
경제적 약점	낙후된 사회간접자본, 고급인력 유출로 인한 인적자원부족 면화생산 및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자료 : 한국 수출입 은행

## 3. 정치 현황

독립일	1991.9.9(구소연방)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Imomli Rahmonov 대통령
의회	양원제(상원 33석, 하원63석)
정당	타지크인민민주당, 이슬람 부흥당, 민주당, 공산당, 사회당
국제기구가입	UN, CIS, IMF, UNESCO, World Bank, EBRD

자료 : 한국 수출입 은행

## 4. 건설업 현황

### (1) 2006년 타지키스탄 건설업 현황

(자료출처: <http://www.bisnis.doc.gov/bisnis/bisdoc/0606TJConstrMarket.htm>)

- 타지키스탄은 최근 시작된 인프라스트럭처, 산업 및 상업 건설 프로젝트로 인하여 건설 기기 및 장비에 대한 수요가 대단함.
- 타지키스탄 정부에 따르면,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에 2006~08년에 걸쳐 5억 달러 가량이 지출될 것으로 추산됨.
- 정부 개혁의 결과, 대규모 소비에트 스타일 건설 업체들은 와해되고 중소 민간 업체로 대체되었음.
- 지속적인 경제 성장 역시 해외 농업 기기, 장비 및 도구 제조업체들에게 기회를 창출함.
- 다음은 타지키스탄 건설 부문 규모와 관련한 통계 및 사실임.
  - 건설에의 자본 투자가 2004년 1억 9,500만 달러로 증가했음.
  - 2004년 완공된 프로젝트는 1억 달러 규모에 달함.
  - 2004년, 장비 수입은 2003년 대비 30% 가량 증가했음.
  - 수억 달러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가 론칭 했음.
  - 타지키스탄 경제 성장률은 2006~08년 전반적으로 평균 6~8% 정도로 예측됨.
- 타지키스탄 건설 부문은 급속하고도 꾸준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음. 이 부문 자본투자는 2000년 4,900만 달러에서 2004년에는 1억 9,500만 달러로 증가했음(2005년과 2006년 자료는 아직 입수 불가).
- 건설 및 엔지니어링은 자본 투자의 주축을 형성함. 정부가 여전히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에 있어 주요 투자자로 남아 있음. 2004년 사업별 자본

투자 분배는 의료 및 교육 시설에 870만 달러, 교통 및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에 5,000만 달러까지 다양함.

- 민간 부문의 자본 투자는 2000년 2,400만 달러에서 2004년 5,700만 달러까지 증가했는데, 주택 부문이 2,700만 달러 이상을 차지함.
- 모든 부문에 걸쳐 완공된 건설 프로젝트의 규모는 2000년 3,700만 달러에서 2004년 1억 달러로 증가했음. 학교, 병원, 유틸리티 등 사회적 인프라와 주택, 산업 건설 부문 프로젝트 등이 주로 완공되었음. 도로 및 교통 부문 완공 프로젝트 규모는 2000년 이래 꾸준히 연 평균 1,400만 달러를 기록함. 산업 건설 완공 프로젝트는 2001년 5,100만 달러에서 2004년 1,800만 달러로 감소함. 정부는 2004년 총 완공 프로젝트 비용 중 52%, 민간은 26% 가량을 조달함.
- 2005~06년, 몇몇 상업 프로젝트가 두산베에서 론칭했음. 이들 프로젝트 중에는 5성급 호화 호텔 4채, 대형 비즈니스 센터 2채, 수력 발전소 및 송출 라인, 몇몇 사업 지구 개조 등이 있음. 향후 3억 달러 이상의 도로 복구 프로젝트에는 아시아개발은행, 일본 정부 및 중국 정부가 펀딩할 예정임.
- 통계에 따르면, 이들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5억~10억 달러 가량임. 2005~15년 국가 개발 통계에 따르면, 모든 주요 건설 부문에 있어 더 많은 건설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음.
- 타지키스탄 경제는 2000년 이래 연 평균 9.5%의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음. 경제학자들은 타지키스탄이 2008년까지 연 평균 7~8%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 2004~05년 인플레이션율은 7% 대로 안정적이며, 2006년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5.1% 정도임.

(2) 우리나라의 타지키스탄 건설 수주건(1건, 6,000천\$)

〈표 Ⅲ-1〉 우리나라 건설 수주 건수

(단위: 천미불)

구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	-	-	-	-	6,000
건수	-	-	-	-	-	1

(3) 우리나라 업체가 시공주인 주요 프로젝트

〈표 Ⅲ-2〉 우리나라 업체가 시공주인 주요 프로젝트

업체	공사명	발주처	공사금액	공사기간
환경시설관리	부상펌프장 설계 및 시공	수자원 토지 간척부	6,000천\$	2007.1.12 2009.1.12

## 제4장

# 투르크메니스탄

### 1. 국가 개황

국가명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위치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과 이란사이에 위치, 카스피해 연안
면적	488천 km <sup>2</sup> (한반도의 2.2배)
기후	대륙성 사막기후, 일교차 및 연교차가 심함
인구	약500만명(2005)
산업구조	제조업 32.0%, 서비스업 31.0%, 농림업 26.0%, 건설업 11.0%(1999)
수도	아쉬하바드(Ashgabat, 41만명)
민족	투르크멘인(85%), 우즈베크인(5.0%), 러시아인(4.0%)
언어	투르크멘어, 러시아어, 터키어
종교	회교(수니파 89%), 동방정교 9%, 기타 2%
화폐단위 및 통화, 환율	Manat, 1\$(USD)=5,200 Manat(2005)
시차	한국보다 2시간 느림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2. 경제 현황

GDP	68억달러(2005)
1인당 GDP	1,423달러(2005)
경제성장률	6.0%(2005)
소비자물가상승률	-3.2%(2005)
환율(\$당)	1\$(USD)=5,200 Manat(2005)
경상수지	236백만달러(2005)
상품수지	1,301백만달러(2005)
수출(\$)	4,939백만달러(2005)
수입(\$)	3,638백만달러(2005)
외환보유액	2,963백만달러(2005)
총외채잔액	-
산업구조	제조업 32.0%, 서비스업 31.0%, 농림업 26.0%, 건설업 11.0%(1999)
주요 수출품	가스, 석유, 면사, 직물
주요 수입품	기계·설비, 식료품
주요부존자원	석유, 천연가스, 유황, 요오드
경제적 강점	풍부한 천연가스 및 석유
경제적 약점	낙후된 사회간접자본,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미비, 열악한 금융제도

자료 : 한국 수출입 은행

## 3. 정치 현황

독립일	1991.10.27 (구소연방)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Saparmurad Niyazov 대통령
의회	단원제(50석)
정당	투르크민주당
국제기구가입	UN, CIS, IMF, World Bank, EBRD

자료 : 한국 수출입 은행

## 4. 건설업 현황

### (1)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업 현황

#### 1) 2005년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시장의 기본상황

- 2005년 1월 ~ 10월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의 건축 및 기타 건설 서비스는 13억 7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하였음.
- 투르크메니스탄의 공사는 대부분 정부 부서와 국가의 대기업에 의해 완성됨.
- 2005년 11월 1일까지 25개 국가로부터의 83개 회사가 투르크메니스탄의 각 부서와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금액은 51억 1,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하였음.

#### 2)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시장의 특징

- 터키의 회사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
- 건축자재시장이 아직 규모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 천연가스 수출확대를 위한 대외개방과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짐
- 산업자원부는 석유공사, LG상사, 대우인터네셔널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자원협력사절단」을 투르크메니스탄에 파견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및 에너지관련 국영회사들과 자원협력에 대해 논의중

-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은 미탐사 자원 개발과 인프라 건설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에너지확보를 위해 이번 사절단 파견을 계획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약 5억배럴의 원유와 102조 4,000억 입방피트의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폐쇄적 사회구조로 현재까지 외국 자원개발 업계의 진출이 거의 없는 상태임.

(2) 우리나라의 투르크메니스탄 건설 수주건(1건, 99,555천\$)

〈표 IV-1〉 우리나라 건설 수주 건수

(단위: 천미불)

구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99,555	-	-	-	-	-
건수	1	-	-	-	-	-

## 제5장

# 아제르바이잔

### 1. 기본사항

#### (1) 국가 개황

-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Republic)은 코카서스 산맥 남쪽 카스피해 연안의 서쪽 해변가에 위치해 있으며, 국토의 대부분이 산(구릉)이며, 러시아, 그루지아, 터키, 아르메니아, 이란과 경계를 이룸.
  - 국토면적은 8만 7천 km<sup>2</sup>로 한반도의 2/5정도임.
- 기후는 대륙성으로 봄과 여름(4월 중순에서 10월)에는 20~30도, 12월~3월에는 훨씬 내려감.
- 전체 인구는 850만명(2006)으로 수도인 바쿠에 약 21.7%가 집중되어 있음.
- 언어는 기본적으로 아제르바이잔어를 사용하며, 고위층이나 50대 이상 고연령자들은 러시아어도 구사함.

#### (2) 정치·경제 동향

- 2006년을 기준으로 GDP는 117억 달러를 기록함.
  - 2003년 73억 달러, 2004년 85억 달러에서 2005년 이후 원유가 상승으로 급격히 증가함.
  - GDP중 원유 가스 관련 산업이 31%를 차지함.
- 최근 GDP성장률 역시 급격히 상승하여 2003년 11.2%, 2004년 10.2%에서 2005년에는 26.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6년에는 34.5%의 높은 성장이 예상됨.

〈표 V-1〉 아제르바이잔의 일반 현황

일반	.위치: 카스피해 연안 카프카즈 .면적: 87,000 km <sup>2</sup> (한반도의 2/5) .기후: 대륙성 .인구: 850만명 (2006) .수도: 바쿠(Baku, 186만명) .민족: 아제르바이잔인(90.6%), 다게스탄인(2.2%), 러시아인(1.8%) .언어: 아제르바이잔어(공용어), 러시아어 .종교: 회교(시아파 75%, 수니파 25%), 러시아 정교
정치	.독립일: 1991. 8. 30 (구소연방)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일함 알리에프(İlham Aliyev)대통령 .국제기구가입: CIS, IMF, MIGA, World Bank 등
경제	.GDP: 117억 달러(2006) .1인당 GDP: 2,335 (2006) .화폐단위: Azerbaijani Manant(AZM) .산업구조: 제조업 55.4%, 농업 12.3%, 서비스업 32.3% (2004) .주요 수출품: 석유제품 84.6%, 식료 5.1%, 화공품 2.3% (2005) .주요 수입품: 기계설비 29.4%, 운송장비 16.7%, 석유제품 11.6% (2005) .주요부존자원: 석유, 천연가스, 철, 구리, 중광석, 금 .경제적 강점: 풍부한 에너지 자원, 정부가 적극적인 경제개혁 정책 .경제적 약점: 아르메니아와의 지역분쟁 소지 상존

- 향후 수년 내에 아제리의 경제규모는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아제리 정부는 내년도부터 연 200억 달러 이상의 석유판매 수입으로 인한 재정 지출방안 모색 중
  - 아제리 정부는 석유수출대금으로 도로, 통신, 발전소 등 국내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원유, 가스에만 의존하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제조업, 건설업 및 IT분야 등으로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 중
  -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매장량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약 70억 배럴로 이는 세계 매장량의 0.6% 수준임.
- 정치적으로는 2003년 10월 대통령에 당선된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 집권이후 신진 엘리트 세력인 바쿠계를 중심으로 구세력인 나히체반계를 점진적으로 축출하며 권력강화를 추구하고 있음.

- 1994년 이후 휴전상태인 나고르니 카라바흐 분쟁은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전과 같은 대규모 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임.
- 이 분쟁은 역사적으로 18세기 이후 오랫동안의 민족적·종교적 갈등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다가, 분쟁 당사자인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국내정치용으로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음.
- 최근 고유가로 인한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의 만연되어 있고, 국민의 과반수가 극빈층에 속하는 등 극심한 빈부격차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교육, 보건, 전력 등 국민생활 여건이 열악함.
- 현 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보건, 교육 등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IMF 및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협력 하에 빈곤감축 및 성장 촉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2. 경제동향

### (1) 국내 경제 동향

- 국제 고유가 기조 속에 신규 석유가스 생산이 증가하여 2005~06년 중 20~25%의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
- 비석유 부문의 투자 부진으로 인해 성장이 정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의 고유가와 석유생산의 증가 및 석유 가스부문의 직접투자(FDI)의 증가로 높은 성장률 기록
- 고유가로 인한 세수확대로 2005년 GDP 대비 1.5%의 재정흑자 전망
- 2004년 고유가로 인해 석유 가스 부문의 세수가 대폭 증가하며 GDP 대비 약 1%의 흑자를 보임.

- 2005년에는 총선거로 인한 공무원 임금 인상, 교육 및 보건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로 GDP대비 1.5%의 재정흑자 기록 전망
- 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물가상승률은 9.6%에 달함.
  - 2003년까지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에 따라 물가가 안정되었으나, 2004년 석유가스 부문으로 대규모 FDI 유입과 석유수출 확대로 달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물가상승률이 6.7%에 이름.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2005년 중 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높아짐.

〈표 V-2〉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국내 경제 지표

항목	단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e
1인당 GDP	달러	701	756	877	1,040	1494	2,335
경제성장률	%	9.9	10.6	11.2	10.2	26.4	34.5
재정수지/GDP	%	-	-0.5	-1.2	0.8	-0.7	0.5
소비자물가상승률	%	1.6	2.8	2.1	6.7	9.6	8.3

자료 : EIU

## (2) 대외 거래 동향

- 고유가와 석유수출 증가에 힘입어 2005년 소폭의 상품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적자 감소
  - 2003년과 2004년에는 석유가스 개발 관련 설비 수입 확대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식품수입 증가 등으로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석유수출의 대폭적인 증가에 힘입어 상품수지는 소폭 흑자로 반전함.
  - 2005년은 석유가스 부문 설비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 및 수출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폭도 확대됨.
- 외채의 경우 GDP대비 외채비중이 낮아 양호한 외채구조와 상환능력을 보유함.

-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신중한 외채정책 및 FDI의 지속적인 유입 등에 힘입어 2004년 총외채액은 GDP 대비 23% 수준인 19억 달러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
- 고유가와 석유수출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확대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외채상환 의지도 양호하여 외채상환 능력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표 V-3〉 아제르바이잔의 대외거래 지표

항목	단위	2002	2003	2004	2005	2006e
환률(달러당평균)	AZM	0.98	0.98	0.98	0.98	0.87
경상수지	백만달러	-768	-2,021	-2,589	167	3,705
상품수지	"	482	-98	161	3,299	7,746
수출	"	2,305	2,625	3,743	7,649	13,015
수입	"	1,823	2,723	3,582	4,350	5,269
외환보유액	"	721	803	1,075	1,178	2,500
총외채잔액	"	1,499	1,746	1,982	1,881	2,000
총외채잔액/GDP	%	24.2	23.9	22.8	14.3	11.3
D.S.R.	%	6.0	6.6	5.3	2.6	2.2

자료 : EIU

### (3) 법인 및 지사 설치 제도

- 외국인의 회사 설립을 규정한 특별법이 없어 일반법이 적용되며, 회사 설치에 필요한 일부 문서를 번역해야 하는 것 이외에는 이와 관련된 특별한 법이나 제도는 없음.
- 외국인 투자 보호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가는 다음과 같이 지사 혹은 법인의 설치가 가능함.
  - 합작법인, 외국인 100% 소유기업, 지사/대표사무소



- 외국인에게 사업장 설치가 허용되어 대표사무소와 현지법인을 설치할 수 있으나,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함.
  - 외국인 투자가는 100% 투자하거나 현지 파트너와 합작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지분상으로 제한 혹은 특별 요구사항은 없음.
  - 사업 수행을 위해 특별히 취득해야 하는 허가나 라이선스가 없으므로 회사를 법무부에 등록시키는 순간부터 영업 수행이 가능함.
  - 대표사무소와 지사는 일종의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어 아제르바이잔 현지 법인으로 취급되지 않지만, 조세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
  - 영업을 가능한 현지법인 중 외국인이 선호하는 형태는 Limited Liability Company와 Joint Stock Company임.
  
- 법인의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등록문서 양식 입수(아제르바이잔) → 등록문서 작성 → 본사의 최종 문서 작성 및 확인 →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의 문서 공증 → 문서의 아제르바이잔어 번역 → 등록 착수(필요문서) → Statistics identification code 취득 → Ministry of justice registration 등록 → Tax Authority 등록 → 통계위원회 등록, 사회보험기금 가입 및 은행구좌개설 필요
  
- 법인의 등록에는 기본적으로 4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관계당국은 명시하고 있음.
  - 등록청(State Registration Authority)은 문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서류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제출자에게 20일의 기간을 주어 문제를 수정케 함.
  - 법무부가 법으로 명시한 기간 내에 등록증을 발급하지 못하거나, 등록 거부서한을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은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경우 법무부는 향후 10일 내로 등록확인증을 발급해야 함.
  
- 한편, 법무부에서는 지사 혹은 대표사무소를 등록하는 도중에도 추가적으로 지사장 신원증명서(여권)와 사진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함.

- 법무부에서 각 지역 사무소를 개설한 관계로 해당지역 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으나, 중앙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회사 등록을 마친 이후에도 회사 직인을 마련하고 세무 당국에 등록을 하는 등 몇 가지 추가로 마쳐야 할 사항들이 있음.

### 3.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제도

#### (1) 건설 면허 및 제도

- 1997년 12월 2일에 발표된 대통령령 “On measures to eliminate Monopoly and Privatize the construction sectors”에 의해 국영기업만이 독점적으로 참여해 오던 건설부문에 민간의 참여가 허용됨.
- 그러나 아직 세부규정은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 소련시절에 사용되었던 건설 규정과 기준(GOST, SNIP)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음.
- 건설부문에 대한 국가의 참여는 광범위하여 건설, 재건 및 설계뿐만 아니라 건설 프로젝트의 부지와 관련된 문제에도 국가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함.
- 건설공사에 대해 소방, 환경보호 및 위생 등 많은 관련 기관들의 반대 없어야 하며, 건설부지를 관할하는 시청 혹은 지방 행정기관의 심의를 통과해야 함.
- 이외에도 문화적, 역사적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건설공사에는 일반적인 허가 외에도 국가의 추가 승인을 필요로 함.
- 준공 검사가 완료되어도 안전, 소방, 위생 및 여타 의무 기준을 맞추었다는 확인서가 발급된 후에야 준공으로 간주되며, 시설물의 이용 혹은 입주가 가능해짐.
-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건설분야 업무를 총괄하던 건축위원회(State Committee of Construction and Architecture)가 2006년 들어 폐지되고 모든 인허가권이 비상사태부로 이관됨. 이에 따라 동 부처 산하에 설립을 추진 중인 건설청이 모든 정부 발주사업을 담당할 예정임.

- 지난 2002년 9월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면허를 필요로 하는 사업 리스트를 발표함.
- 이에 의하면 건설과 조립, 설치와 보수,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념물에 대한 개보수 등이 제외되었고 다만, 터널, 교량 등 주요 장소와 관련된 기획 및 조사 작업에만 면허는 받도록 하고 있어 면허에 따른 진출상의 제한은 거의 없는 상황임.
- 외국인의 건설업 단독 참여는 거의 불가능하며, 아제르바이잔 현지인 혹은 현지 기업과의 합작으로 참여할 수 있음.

## (2) 부동산개발업 관련 제도

- 아제르바이잔은 구소련 국가 중 첫 번째로 토지 사유화를 실행한 국가임.
-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터키 기업들이 진출하여 부동산개발에 많이 참여한 바 있음.
- 전체적인 국민소득은 낮은 편이고 아직까지 모기지론을 통한 주택구입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수도 바쿠를 중심으로 활발한 건축공사가 진행 중임.

### ○ 외국인의 토지소유 제한

- 외국인은 토지 소유가 불가능하여 임차만 가능한데 임차기간은 최장 99년임.
- 단, 건축물의 경우에는 외국인 소유권에 제한이 없음.
- 승소나 담보해지와 같은 사유로 불가피하게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1년이내에 처분해야 함.
- 토지 소유권은 ① Ownership : 완전소유, ② Lease : 임차, 임대차 기간은 계약에 따름, ③ Use : 임시사용(99년까지)과 영구사용으로 구분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됨.

## ○ 모기론 제도

- 아직까지 서민을 위한 중장기 모기지론 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05년부터 National Bank는 시민의 신규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원으로 모기지론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신규법안을 제정함.
  - 2005년 12월 22일에는 대통령령으로 아제르바이잔 최초의 모기지 지원 기관인 AMF(Azerbaijan Mortgage Fund)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2006년 12월 기준으로 AMF의 조직 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
  - 2007년 1월부터 AMF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업체들이 공급하는 바쿠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200~2,000/m<sup>2</sup>로 비교적 가격차가 심한 편임.
  -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분양시 아파트 가격의 10~4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고 있음.

## 4. 건설 및 부동산 시장 동향

### (1) 시장 동향

- 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최근 건설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 건설부문의 투자추이를 보면, 2001년 5.9억 마나트에서 2002년에는 11억 마나트(86%증가), 2003년 19억 마나트(72% 증가), 2004년 24억 마나트(26%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건설시장은 석유자원개발과 가스·석유 파이프라인 공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수도 바쿠를 중심으로 상업용 건축과 주택개발도 활성화됨.

- 주요 개발사업은 도로, 에너지를 중심으로 전개
  - 도로 총 연장 18,723km 중 당장 정비가 필요한 1,240km를 국제수준으로 개선하는데 약 10억 달러 소요 추정
  - 향후 5년간 고속도로 및 주변국 연결도로 건설에 8억 1,300만 달러 추가 예정(ADB, EBRD 차관 등)
- 2005~15년 종합에너지개발계획에 따라 발전, 천연가스, 석유 증산 추진
  - 천연가스 및 석유는 각각 200억m<sup>3</sup>와 5,000만톤으로 확대
  - 정유 플랜트 현대화에 6~7억 달러 소요 예정
- 도로 시설 취약
  - 도로의 총 연장은 18,723km, 4차선 고속도로는 191km에 불과함.
  - 도로포장율은 50%를 넘고 있으나 대부분 1970년대 건설되었으나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3/4가 불량한 상태임.
  - 도로건설은 주로 국제금융기관 차관, 일본, 쿠웨이트 등의 ODA에 의존
- 전력시설은 발전설비 총 용량이 5.2 GW로 1991년 독립이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력난이 심화됨. 전력정상화를 위해 25억불 소요
  - 현재 러시아, 터키, 이란 및 그루지아에서 전력 수입
  - 2015년까지 발전설비를 7,000 MW로 증설 계획
- 상하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향후 수질개선사업에 약 30억 달러 및 수도공급시스템 개선에 10억 달러 소요 예상

## (2) 현재 입찰 제안을 제출하였거나 입찰예정인 프로젝트<sup>1)</sup>

- 북측 : ① 바쿠- 러시아 국경간 고속도로 개보수
  - 전체 구간 중 일부(61KM)만 PQ발주(실시설계 완료)
  - 유럽 재원 85% + 정부재원 15%
  - 삼환 등 19개사 선정
  - 입찰구간 외 구간은 체코재원으로 체코업체만 참여 가능
  
- 남측 : ② Alat - Astarat(이란국경) 고속도로
  - 삼부토건(천일기술단)에서 제안 : 195 KM / 2.5억불
  
- ②-1. Alat - Masally(136KM)
  - W.B. 재원
  - 용역업체 선정중
- ②-2. Masally - Astara(56KM)
  - ADB재원으로 금년 중 입찰 예정
  
- 동서1 : ③ Gazi Mammad - Georgia 국경 : 380KM / 3억불
  
- ③-1. 380KM중 100KM :
  - Paribas 은행 금융(1억불)으로 시공 중
- ③-2. Yevlax - Ganja : 90KM
  - 기존 2차선 보수공사 : ADB 자금
  - 신설 2차선 건설공사 : 한국업체(범진+우리은행) 추진중
    - \* EPC(Fast Track 방식)및 금융주선(우리은행)
    - \* 설계는 안 돼 있으며, 약 1억불 추정
    - \* 아제르정부와 우리은행간 최종 Loan조건 협상(2006.6.26-29)

---

1) 이는 한·아제르바이잔 대표단 순방 시 파악된 프로젝트로 현재 우리나라 업체들을 비롯한 외국 업체들이 입찰을 준비 중이거나 입찰제안을 제출한 프로젝트들임.

- 동서2 : ④ Baku - Sharmakhy - Georgia 국경 : 310KM / 4억불

④-1. Baku - Sharmakhy 자동차 도로 : 120 KM / 1.5억불

- W.B. 자금
- 실시설계 완료(독일) 104 KM
- 2개월 내 공고 예정

④-2. Sharmakhy - Sheki - Georgia 국경 : 190 KM / 2.5억불

- 구상단계(타당성조사 안됨)
- 외국의 은행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있는 중

- 남측2 : ⑤ Yevlax - Beilagan간 고속도로(150KM)

- 현재 WB 1개 은행에서만 제안받은 상태로
- 한국업체의 Financing & Constructon 가능(범진에서 제의)

- Baku : ⑥ Baku 시내 개선 및 우회도로

⑥-1. Baku 시내 교량 건설공사 (70 Mil U\$)

- 평화 엔지니어링 설계 : 사장교 1 KM
- Azer 정부자금 → 금액 절감 요구

⑥-2. Baku 시내 교차로 개선사업 (45 Mil U\$)

- 9건 중 7건 공사 중
- 2건 교차로 개선사업(평화엔지니어링 설계) : 45 Mil U\$

⑥-3. Baku 우회도로 1 : 21 KM / 50 Mil U\$

- Kuwait Fund 26 Mil U\$ + 아제르 정부자금 24 Mil U\$
- 기 입찰 : 가격 Nego 중 결렬 → 재 입찰 예정

⑥-4. Baku 우회도로 2 : 37 KM / 1 ~ 1.5 억불

- 이란업체가 F/S및 Concept Design 완료
- 한국/아제르간 상징적 협력사업으로 추진 제의
  - \* EPC(Fast Track 방식)및 금융주선(EDCF+민간자금)
  - \* 평화엔지니어링에서 설계 추진

### (3) 외국 건설업체 진출 현황

- 석유, 가스 관련 인프라 개발에는 서방 선진국 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으며, 일반토목 분야는 터키, 러시아 업체들의 활동이 활발
  - 주요 서방업체로는 영국,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등
- 알제리 건설업체들은 외국 업체의 하도급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형 토목공사의 단독수행은 어려운 실정임.

## 5. 우리나라와의 관계

### (1) 일반 현황

- 외교관계 수립: 1992년 2월 23일 수교(북한과는 1992년 1월 30일 수교)
- 공관현황: 2006년 3월 대사 부임
- 주요 협정 체결: 없음.
- 투자실적 : 양국간 교역은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04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2,000만 달러로 미미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를 보여 2006년에는 4,500만 달러에 이름.

〈표 V-4〉 對 아제르바이잔 수출입 추이

항목	2004	2005	2006	주요품목
수출(천 달러)	19,127	32,240	47,357	자동차 부품, 건축용품, TV,
수입(천 달러)	649	103	13	금속광물, 알루미늄

자료 : 수출입은행



## (2) 한국 건설업체 진출 현황

- 지금까지 3건, 약 220만 달러의 수주 실적 기록함.
  - 1994년 현대건설이 아제르바이잔 수력발전 댐 기술용역 자문(21만 달러)
  - 2003년 건원건축 및 건원ENG가 바쿠 주택건설 설계(140만 달러, 타절)
  - 2007년 3월 GS건설이 59만 6천 달러 규모의 바쿠 교량 공사를 수주하여 현재 시공 중 임.

〈표 V-5〉 아제르바이잔 공사 수주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합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2,211	215	1,600	0	-200	0	596
건수	3	1	1	0	0	0	1

## (3) 아제르바이잔 진출 시 고려사항

- 긍정적 측면
  -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인프라 및 주택 등 건설 물량 풍부
    - : 아제르바이잔에 파견된 국정원 참사관에 의하면 ‘바쿠는 현재 건설 중’이라고 할 만큼 많은 건설공사가 추진 중임.
  - 풍부한 석유자원으로 인한 자체 재원 확보 가능, 국제 금융기관 및 외국계 은행 및 기업의 지속적 투자
  - 양국 정부 간의 협력관계 추진
- 부정적 측면
  - 의사소통의 제약 : 30대 이상은 러시아어와 아제리어 사용, 30대 미만은 아제리어만 사용, 영어교육 취약
  - 철근, 모래, 자갈 등 주요 자재 원활 수급 의문시됨(대규모 토목공사시 필요자재의 현재 조달 무리 예상)

- 건설 장비 노후화로 본국 조달 및 인접국 대여 사용 불가피 → 원가상승 초래
- 건설 관련 제도 및 공사 관련 규정 미비
  - : 구 소련시절 건설관련 규정 및 spec.의 폐기 및 와해되고 새로운 규정 준비 중으로 공사 시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한 마찰 가능성 상존
- 공무원 업무 처리의 비효율성 및 부정부패 만연
  - : 본 대표단 아제르바이잔 입국 시 급행료 지급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 지연
  - : 알리에프 대통령 부패 근절 천명

## 제6장

# 우즈베키스탄

### 1. 기본 사항

- 우즈베키스탄의 일반적인 현황은 <표 VI-1>과 같음.
  - 언어는 우즈베크어를 공용어로 하며 러시아어도 일반적으로 사용
  - 인구증가율은 2007년도 1.73%로 추정
- 수도는 타슈켄트(인구 : 240만명)이고, 행정조직은 12개 지방 및 1개 자치 공화국(Karakalpakstan)으로 구성
- 기후는 고온 건조한 대륙성 기후로 여름 최고기온은 42도(평균기온: 25-30도)로 매우 더움.
  - 겨울 최저기온은 -10도 이하(평균기온 : 2.8도)로 상대적으로 온난하며, 시차는 우리나라보다 4시간 느리고(타슈켄트), 모스크바보다 2시간 빠름.

<표 VI-1> 일반개황

면적	44.7만km <sup>2</sup> (한반도 2배)	GDP	131억 달러(2006년)
인구	26.6백만 명(2006년)	1인당 GDP	492억 달러(2006년)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임기 5년)	통화단위	Sum(숨)
대외정책	CIS 결속, 친러 관계 강화	환율(달러당)	1,253숨(2007.4.23 현재)

자료: 수출입은행 및 해외건설협회

## 2. 경제 현황

### (1) 주요경제지표

- 우즈베키스탄의 국내 경제 지표를 보면 2004년 7.7%의 GDP성장률을 기록, 독립이후 최대의 성과는 나타냈으며, 2005년에는 7.1%를 기록함.
-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은 정부가 얼마나 신속히 개혁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임. 구조조정이 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2006년 7.2%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2006년 경제성장은 러시아 기업의 석유·가스부문에 대한 투자, 국제 금 시세 강세 및 면화가공능력 향상 등으로 7%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됨.
  - 2005년 이후 해외유동성 증가에 따른 통화량 증가, 공공요금 및 공공부문 임금 인상 등의 요인이 맞물려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서 2006년 7%를 넘어섬. 2007년에도 대선을 앞둔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물가상승 압박요인은 상당하나, 물가가 크게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음.
  - 공식 재정수지 통계는 매우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자원 시세 강제로 재정수입이 증가, 2006년에는 적자를 기대했던 재정수지가 소폭 흑자로 반전됨. 그러나 2007년에는 사회보장 및 보안강화 비용 증가, 대선을 앞둔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소폭 적자로 반전될 전망이다.

〈표 VI-2〉 우즈베키스탄 국내경제지표

(단위 :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F)
GDP성장률	4.0	4.2	7.7	7.1	7.2
재정수지/GDP	- 0.8	- 0.4	-0.4	0.1	0.5
물가상승률(%)	24.2	13.1	1.7	6.9	7.3

자료 : EIU, *Country Report*, 각호; 한국수출입은행, 재인용, 2007. 6

-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국제경제지표를 보면 2006년 경상수지는 19억5백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2006년 수출은 5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수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금의 국제시세 상승, 에너지 수출 증대, 숨화 하락과 러시아 경기호조에 힘입은 자동차 수출 증가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는 2003년 8%대를 기록한 이후 흑자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2006년에는 14.5%로 상승함.
- 주요 수출 품목은 면화(17%), 에너지(10%) 등이며 면화의 국제시세 하락추세에도 불구하고 면화 생산이 증가하였고 에너지 수출 증가, 금의 국제시세 상승 등의 요인으로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고관세 등 소비재 수입규제는 계속되고 있으나 면화제조업 등 주요산업과 관련된 자본재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표 VI-3〉 우즈베키스탄 국제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F)
경상수지	97	863	1,212	1,448	1,905
상품수지	324	835	1,080	1,110	1,890
수출	2,510	3,240	4,290	4,740	5,660
수입	2,186	2,405	3,210	3,640	3,770
외환보유액	850	1,162	1,546	2,300	2,900

자료 : EUI, *Country Report*, 각호; 한국수출입은행, 2007. 6

## (2) 최근경제동향

- 우즈베키스탄은 1996년을 기점으로 경제 침체에서 탈피, 플러스(Plus) 성장 및 물가 안정과 재정적자 축소로 안정을 이룩하여 CIS(독립국가연합) 국가들 중 가장 전망이 밝은 국가로 인식되어 왔으나 경제 개혁의 실패와 개방부진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 등 경제가 위축됨.

- 그러나 최근 국제자원시세 강세, 러·중의 투자증대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경상수지 확대에 따른 대외유동성 증가, 외채 상환여건 개선 등으로 회복세로 들어서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자급을 위해 생산 증대 노력을 계속하여 에너지 자립을 이루었음.
  - 1995년도 700만톤, 1996년 800만톤의 석유를 생산, 이미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상황에서 탈피하고 천연가스와 소량의 석유를 수출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매년 440억㎥ 규모의 천연가스를 생산하였으며 CIS 국가 중 수출면에서 2, 3위를 차지하고 있음(천연 가스 부존량 5조 5,000억㎥).
- 우즈베키스탄은 금, 우라늄, 구리 등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금 생산량은 70톤 정도로 세계 8위, CIS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수년내 년 금 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금광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CIS와의 무역량이 줄어드는 반면 한국, 중국 및 서유럽 국가들과의 교역량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 주요 수출 품목인 면화 및 금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외환 사정이 악화되자, 96년부터 환전 통제를 가하기 시작하였음.
  - 이러한 인위적인 환율 조작으로 인해 경제 제반 분야에서 왜곡된 자원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98년 러시아 경제 위기 이후에는 환전 통제가 보다 강화된 바, 외환 방어를 위해 수입 분야에 대한 외환 배정을 통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외환 보유고를 증가시켰음.
- IMF 등 주요 국제 경제 기구들은 환전 통제 철폐 및 경제 개방이 경제성장의 요건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독자적인 경제 발전 전략을 고수중임.

- 동 환전 통제는 주재국의 성장 잠재력을 제한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음(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홈페이지).
-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1997년 이후 감소세를 보여 온 외국인 투자는 부진을 계속하고 있음.
  - 전반적인 외국인의 투자는 부진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에너지 부문 투자는 확대되었음.
  - Uzbekneftegaz(국영석유가스회사)는 2004년 4월 러시아의 Gazprom과 15년간 Shakhpakyty 가스전개발 관련 생산물분배협정(Product Sharing Agreement, PSA)을 체결하여 가스전개발에 1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러시아의 LUKoil과는 Khauzak-Shady, Kandym 가스전 개발 PSA를 체결하였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4년 8월 중국으로부터 석유 및 가스부문 자금 도입(10억달러)과 관련된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005년 이후 25개 프로젝트에 3억4천5백만달러, 석유·가스부문개발에 1억2천만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 또한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5년 발생한 안디잔 유혈 사태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이 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가상승률 7.8%, 산업생산 증가율 7.3%, 소비재 생산 증가율 17.7%, 농업생산 증가율 6.2%, 재정적자 GDP 0.1% 이내 달성(목표는 1% 이내)으로 당초 목표로 한 모든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음(www.uzbek.co.kr).
-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정세는 외국인의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3) 우즈베키스탄의 국가개발전략 (경제개발중점분야)

- 우즈베키스탄은 농업국으로서 농업발전을 기초로한 국가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998년도 최우선 투자 분야로 농업기계 생산공장 현대화를, 두번째 우선순위로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 개발(특히, shurtan gas and chemical complex 건설), 세번째 우선순위로 중소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음(700개 중소기업 지원계획).
- 위 투자를 위하여 미, 일, 영,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럽부흥개발은행), ADB(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등으로부터의 차관을 확보하였음.
- 우즈베크 정부의 국가 개발 전략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수입 대체 효과가 있는 분야의 투자에 대한 특혜 부여임.
- 우즈베크 정부는 시장경제로의 개혁에 있어 아래 5가지 원칙을 중시하고 있는 바, 이는 우즈베크이 다민족(120개), 다종교 (15개)로 구성된 국가로서 정치, 사회,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입안된 것으로 보임.
- 경제논리가 정치논리보다 우선
- 국가가 개혁의 주체이자 guarantor 역할 수행
- 법치주의 원칙 준수
- 전환기중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
-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개혁 추구

### (4) 투자장벽

- 투자진출 제한 분야를 보면 방위산업, 내무부 및 국가보안위원회 산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및 기업의 신규설립 등은 제한되어 있음.
- 그러나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의 경우에도 허가 조건이 부과되는 사례가 다수 있음.



-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을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세제 및 비세제 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외국 투자기업으로 분류하여 혜택을 주고 있음.
  - 초기 자본금이 15만달러 이상
  - 설립자 중 하나가 외국 법인이나 개인
  - 외국 투자자본이 30% 이상 등임.
- 동 기준에 미달할 경우 투자는 가능하지만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지 않고,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1998년 「외국인투자법」 개정 이후 100% 외국인 소유기업도 내각의 사전 심의를 받을 필요없이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음.
  - 다만 외국인투자금액이 2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각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국영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산위원회의 사전 결정이 요구됨.
- 부동산 취득 제한을 보면 우즈베크 국민에 한해 농업 및 일부 건축용지의 사유가 허용됨.
  -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 및 개인은 토지의 영구 또는 임시 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토지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음.
  -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을 구입할 경우, 동 부동산이 위치한 대지의 점유권 및 사용권도 같이 이전된 것으로 해석함.
  - 외국인은 토지의 리스가 가능하나 내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통 기간은 10년임.
- 금융상의 제한은 먼저 일반 현금 결제(Cash Settlement)제한이 있는데 이는 경제주체간의 외환대금 결제는 원칙적으로 은행간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일상경비 목적으로 외환을 보완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은행에 예치된 자사의 자금이라 할지라도 봉급 및 출장비 등 한정된 목적에 한해 인출할 수 있음.
  -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는 현지인 봉급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음.
- 다음으로 외환의 강제매각이 있는데, 이는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환의 50%를 자금수취 10일 이내에 공식 환율로 매각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함.
  - 전체 수출대금 중에서 수송, 보험, 관세, 수수료,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 등 경비를 제외한 총액을 기준으로 매각 규모가 결정되며, 강제매각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중소기업의 활동이 미약해 혜택을 받는 기업은 적은 편임.
- 우즈베키스탄의 경쟁정책을 보면 재무부 산하 반독점청(State Antimonopoly Organizations, SAMO)에서 경쟁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분야에서 6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과 시장점유율이 35~65%이더라도 SAMO조사결과 독점적 지위에 있다고 판정되는 기업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관리되고 있음.
  - 독점기업들에 대해서 SAMO는 가격 및 이윤을 통제, 독점기업화할 수 있는 기업합병의 검토 및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3.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제도

#### (1) 건설제도

##### ○ 면허·허가 제도

- 외국기업이 건설업을 수행하려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 면허는 토목, 건축 등 공종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타슈켄트시의 경우 우선 시청에 회사등록증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발급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됨.

- 그러나 실제로는 현지 유력 인사를 통하거나 커미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임.
- 타슈켄트시에서의 건설업면허 취득절차는 다음과 같음.
  - 먼저 시청에 면허발급을 희망하는 서신을 발송하고 구비서류를 건설부 산하 건축건설협회에 제출
  - 건축건설협회는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추가로 모국에서의 기업 신용도 증명서류 등 보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청에 심사를 의뢰
  - 시청은 동 서류를 대외경제성, 외무부, 노동부 등에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됨.
-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직원명단 (정식 및 임시직 구분, 교육정도, 직위 등 명시)
  - 재무상태 증명서류
  - 대표자 신상명세서
  - 법인등기부 등본
  - 정관
  - 합작기업의 경우 양사의 대표자 신상명세서 및 재정상태 등
  - 기타

## ○ 지사설치제도

- 현지법인, 지점, 대표사무소 등의 설립이 가능하며 법무부에서 등록을 관장
  - 현지법인의 경우 100% 외국인소유가 허용되며 주식회사, 무한책임조합, 합자회사, 추가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조합 등이 형태로 설립
  -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지점일지라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모기업이 송금하는 운영자금을 자본금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
  - 우리나라의 연락사무소와 유사한 대표사무소의 경우 영업행위는 불가능하며 단순 중개 및 연락업무만 가능

- 현지법인의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일반적인 사항).
  - 신청서 : 투자 의사, 사업 개요, 자본금 규모, 합작투자 여부 및 지분율 기재
  - 등록할 법인(지점, 대표사무소) 정관
  - 투자합의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 자본금의 30%에 대한 납입 증명서
  - 등록수수료 납입 영수증
  - 모기업의 무역업 등록증 또는 상공회의소 등록증
  - 모기업에 대한 주거래은행추천서
  - 법인(지점, 대표사무소) 대표자에 대한 모기업의 위임장
  - 법인(지점, 대표사무소) 대표자의 여권
  - 부동산 임차계약서
  
- 현지법인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음.
  - 구비서류 중 우선 법무부에 신청서와 등록할 법인의 정관을 제출하면 법무부가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세 납부를 위한 은행계좌를 지정
  - 모든 서류는 우즈베키스탄어나 러시아어로 작성 또는 번역되어야 하며 공증을 마쳐야 하는데 우리나라 주재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공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
  - 등록수수료는 합작기업, 자회사 및 지점일 경우 5백 달러외에 법정최저 임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납부하며 100% 외국인소유 기업은 2천 달러를 납부
  - 또한 법무부의 심사과정에서 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시 처음 납부한 등록 수수료의 20%를 추가로 납부
  - 법무부 등록이 완료되면 관할 경찰소에 회사 직인 등록, 거시경제·통계부 등록, 대외경제부 인증국의 무역업 등록(필요시), 세무신고 및 납세자 번호 수령 등의 절차를 거쳐 영업활동에 착수
  -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식적으로 법무부 등록에 5일, 기타 기관 등록에 2주 정도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음.
  - 지사설립자의 비자는 통상적으로 일반 비즈니스 비자로 입국하여(1달 이내) 등록이 완료되면 1년짜리 복수비자 발급이 가능함.

## ○ 노동 및 고용

- 건설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시공품질이 낮고 안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함.
  - 현지 인력의 기능도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 고려인, 러시아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력이 잡부 수준임.
- 현지 인력의 임금수준은 업종 및 숙련정도 등에 따라 상이하며 평균치 기준으로 야근수당 및 기타를 포함하지 않은 기본급이 월 60~250달러 수준임.
  - 직종별 임금수준은 다음과 같음.

〈표 VI-4〉 현지 인력의 임금 수준

(단위 : Sum)

직종명	기능도	월급여	비고
현장소장		250,000	1US\$ = 1,000Sum
기술직	10년 이상	170,000	
	5년 이상	80,000	
행정직	5년 이상	170,000	
	3년 이상	80,000	
십장	10년 이상	150,000	
중기원	고기능자	150,000	
	저기능자	80,000	
정비사	고기능자	100,000	
	저기능자	70,000	
기능공	고기능자	100,000	
	저기능자	60,000	
기능공	고기능자	100,000	
	저기능자	60,000	
일반공(노무)		60,000	

주 : 2003. 10 기준, 복리후생비 및 야근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은 단가임,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참조

- 중앙아시아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비자 없이 국가 간 왕래가 용이하여 비교적 자유스럽게 제3국 인력을 조달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임금 수준이 타 지역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제3국에서의 조달보다는 현지인력 조달이 보다 수월함.
-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 및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업허가 취득시 허용된 분야 외에서의 노동활동은 금지함.
- 고용허가 및 취업허가는 1년간 유효하며 기업의 고용허가 발급 수수료는 법정 최저임금의 10배, 취업허가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으며, 발급 기간은 모든 구비서류가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통상 15일 정도가 소요됨.
- 고용허가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일반적인 구비서류).
  - 신청서
  - 고용조건 등이 명기된 고용계약서
  -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
  - 수수료 납부 증명서
  - 에이즈 감염여부 확인서

## (2) 부동산 개발 관련 제도

### ○ 부동산 취득

-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다루는 기본법은 1992년 12월 8일 채택된 「우즈베키스탄 헌법」, 개정된 1990년 10월 31일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의 재산에 관한 법」, 개정된 1998년 4월 30일자 「토지법」임.
- 부동산의 소유주는 자유롭게 그 재산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대상에 대한 제 권리를 소유, 사용, 처분할 수 있음.
- 우즈베키스탄에서 소유권의 대상은 토지, 동산, 부동산(건물), 지적재산권, 화폐, 증권 등임.

- 외국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규정과 절차는 1999년 2월 27일자 N92번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이 주택 구매와 타슈켄트시에서 정상적 거주를 위한 타슈켄트로 이주 조정에 관한" 내각 결정과 그 후에 채택된 2001년 2월 13일자 N74번 상기 결정 개정안과 2004년 12월 16일자 N586번 "타슈켄트 시에서 주택 매입 절차에 대한 보충 조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내각 결정에 따름.
-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이 토지 소유 자격을 얻는 것(즉, 토지를 소유, 사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매우 제한적임.
  - 외국인 개인은 아파트나 대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법인(외국합작사 포함)은 소규모 유통 또는 서비스 시설(예, 소상점)이 위치하고 있는 대지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음.
  - 그러나 외국인 법인도 중간 규모와 대규모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권은 허가되지 않으며, 대신 외국인 법인은 대개 영구적인 또는 일시적인 토지 이용권을 허가 받게됨.
  - 이는 토지를 사용할 수는 있는 권리는 있지만 토지를 처분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함.
  - 영구 이용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궁극적인 소유주는 국가이나, 임시 토지 이용권은 3년에서 10년까지이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갱신이 가능함.
- 우즈베키스탄 영토 내에서 주택 매매 계약 당사자 중 한 측이 외국인이면, 우선 반드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법에 따라 내무부가 발급한 영주권을 소유하여야 함.
  - 영주권을 소유한 외국인이 타슈켄트 시청 산하에 소속된 거주 등록 허가 전문 위원회에 요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외국인의 주택 매매 계약을 등록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는 관련 기관이 고시하는 주택 가격의 100% 수수료가 징수됨.
  - 즉,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만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일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법들은 분쟁발생시 기본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움 (영주권취득 자격은 5년 이상 우즈베크에서 체류한 경우임).

- 편법적으로 현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증을 하는 경우가 있음.
- 현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내의 많은 한국인들이 이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이는 오직 명의 대여자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것으로 현지인과의 분쟁이 있을 때 승소할 수 없음.
- 또한 우즈베키스탄 내국민에 대해서도 타슈켄트에 거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부동산취득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 타슈켄트에 임시로 주거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많은데 부동산 취득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예를 들어 한국인과 국제결혼하신 분이 부하라사람이면 타슈켄트의 아파트 소유자가 될 수 없음.

### (3)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 외국인투자법은 1991년 6월에 도입되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적 기초를 제공함.
- 그러나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방위산업, 내무부, 국가보안위원회 산하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금지되었으며 수송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원자재 개발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정부에 의해 특별 관리되고 있음.
-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은 「외국인투자법(Law on Foreign Investment s)」과 「외국인투자자 보호법(Law on Guarantees and Measures to Protect Foreign Investors' Rights)」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적인 혜택부여에 관한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on Additional Incentives and Privileges Granted to 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ments)」 등이 있음.
- 1998년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외국인 투자는 투자프로젝트 및 기타 여러가지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한 토지소유권, 물적·지적자산 등 모든 형태의 자산을 의미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지분이 자본금의 30% 이상일 경우를 의미함.



- 투자수익금의 재투자 또는 기타 목적으로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함.
  - 투자수익금, 급여 등에 대한 송금을 보장함.
  - 투자자산 등의 자유로운 철수를 보장함.
  - 전쟁 등 비상시를 제외한 외국인 투자자산의 국유화를 금지함.
  - 우선투자부문 및 중소기업부문, 원자재 가공, 소비재생산 등에 참가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특별우대제도(사안별로 정부가 결정)를 시행함.
  - 외국인투자관련 분쟁해결은 우즈베키스탄의 국제협약에 특별한 규정 없을 경우, 우즈베키스탄의 법원, 중재재판소 및 지방 중재재판소에서 심의하여 결정함.
- 외국기업 투자장려 정책은 내용상으로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와 유사하고 투자제한분야도 방위산업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며 투자원리금의 송금도 원칙적으로는 보장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 우대제도로써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통령령에 의해 외국인지분이 30%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5만 달러 이상인 기업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들 기업의 수익 중 60% 이상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재화나 용역 판매대금일 경우 다음의 인센티브를 부여
  - 7년간 이윤세(Profit Tax)와 부동산세 면제(자본금이 50만 달러 이상일 경우)함.
  - 토지세 (Land Tax)를 2년간 면제하고, 종업원 급여 제한 철폐함(현지 기업의 경우 임금상한이 제한하고 있음).
  - 이밖에도 특별 투자우대제도가 있어 정부는 명문화된 내용 이외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차별을 두고 있으므로 대정부 접촉 및 설득이 중요함.
  - 일례로 정부는 매년 "Annual Investment Program"이라는 선별된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는데 동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기업에게는 일반 투자와는 달리 조세감면, 외환환전 등의 특혜를 부여함.
-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투자국으로는 우리나라가 최대이며 그밖에 미국, 터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이 있음.

〈표 VI-5〉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 투자 실적 추이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외국인직접투자	75	83	65	70	187	250

출처 : EBRD,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 우즈베키스탄 현지 상업은행을 통해 현지화의 조달이 가능함.
  -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으로 1년 만기 단기 자금과 투자 프로젝트의 자금으로 5년 만기 중장기 자금의 조달이 가능한데 조건은 해당 상업은행에 의해 결정됨.
  - 투자규모가 상업은행의 자본 15%를 초과하는 프로젝트는 신디케이트론 방식으로 금융조달이 가능한데 담보의 설정이 필요함.
  - 현지금융기관을 통한 외환의 확보는 수출용 설비의 신설 및 확대의 경우에 한해 외환공인은행을 통해 가능함.
  -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도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화 도입 라이선스를 교부받아야 함.
  -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금 도입의 목적,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FS), 도입 조건, 채무변제 재원 및 기업의 외화 계좌에 관한 외환공인 은행의 증명 등과 신청서를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함.
- 외국인 투자기업은 합법적인 활동으로 취득한 외환수입을 해외로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외화 부족으로 인해 과실송금이 어려운 상황임.
  - 현재 외환 반출입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화에는 50%를 공식 환율로 강제 매각할 의무가 부과됨.
  - 반면 외국통화 매입은 중앙은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원리금상환, 외국인 주주앞 배당 등의 경우에는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03년 10월 현지화의 완전 태환 보장을 시행하였으나, 2004년 들어 외환사정 악화로 기업의 달러 매입신청에 대한 은행의 처리 지연, 신청액에 대한 매각액 비율 저하, 완제품 수입에 대한 선별적 태환 허용 등이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현지화를 경화로 바꾸는 방법은 정부의 환전면허 획득과 특정 분야 제조기업에 대해 환전권을 부여하는 두가지만 허용됨.
- 환전면허는 국가 통화신용정책위원회(Commission on Monetary-Credit Policy)의 심의를 거쳐 중앙은행이 발급하며 발급 수수료는 2천 달러이며, 발급된 면허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거래은행에 환전을 신청하는데 최근에는 환전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환전이 가능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함(실제로 환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대형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최근 환전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음).
-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기타 기업으로서 수출품 또는 수입대체품 생산의 경우 환전권이 부여되며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음.
  - \* 외국인 투자기업 중 수입의 60% 이상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재화나 용역 판매대금일 경우
  - \* 수출품 또는 수입대체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 외국인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업체로서 자체 필요에 의해 원자재나 부품, 기술,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 최근 외환상태가 악화되어 환전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 4. 건설 및 부동산 시장 동향

### (1)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 건설부문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고려하는 우선 개발대상 가운데 순위가 낮은 편에 속하며, 건설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11%에서 2000년 6.8%로 하락하였음.
- 이후 각종 제조업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이후 약 10% 이상 성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 지하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국가 대부분에서 볼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는 찾아볼 수 없으며 정부예산, 국제금융기관의 소규모 차관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자체 자원이 부족하여 지난 2000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도로공사를 아직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외국인이 철수하고 신규투자가 주춤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공사가 많지 않음.
- ADB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차관과 원조로 관개 및 상하수도 공사가 발주되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음.
- 2005년 초에 도입된 장기 모기지론 프로그램으로 주택건설이 다소 활성화 되고 있으나, 외국인의 참여를 유도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2005년 5월 발생한 안디잔 유혈 사태 이후 우즈베키스탄 투자에 대한 외국인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전환된 상태임.
- 전자재는 자국산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대리석등 일부자재는 이탈리아와 투르크메니스탄 등에서 수입하고 있음.

## (2)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 타슈켄트 아파트의 시세는 2002~04년 3년간 해마다 100%이상 가격상승을 이루고 있음.
-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은 첫째, 외국에서 자본을 취득한자나 국내자본가들의 적절한 투자처가 없다는 점과 인근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의 발전 과정을 볼 때 부동산가격이 언젠가는 폭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임.
- 둘째, 지방사람 및 외국인의 대도시 집중에 의한 중심지역의 가격 양등요인이 가격상승의 기폭제가 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농촌도시의 취업 및 소득격차가 커짐으로써 대도시 유입이 많아진데 비하여 주거지 확충이 잘 이뤄지지 않는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가격이 오르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부동산가격은 공유되는 정보가 극히 미미하여 공신력 있는 부동산 가격을 알 수 없음.

- 부동산 신문이 있으나 매물가격이 나와 있지 않아 가격은 직접 매수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가격이 20~30%정도 차이가 날 수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아파트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음.
  - 위치적 요인(흔히 말하는 센터를 중심으로 결정).
  - 층별 요인(고층에 대한 편의 시설이 미비하기에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층이 로열층임).
  - 재료적 요인(지진에 대한 우려로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보다 벽돌을 사용한 아파트를 선호함).
  - 마감재 요인(타슈켄트는 지금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가 한층 과열되어 있어 아파트의 내부 수리정도에 따라 아파트의 가격에 큰 폭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 중국산 마감재는 저가로 인식되고 유럽산 마감재는 고급으로 인식되어 선호함).
- 2004년 9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역의 임대료는 다음과 같음.

**〈표 VI-6〉 타슈켄트 지역의 아파트 임대료(2004. 9월 현재)**

위치	인테리어 수준	면적(m <sup>2</sup> )	월임대료(달러)
Akkurgan Street	Standard	80	200
Chilanzar	Standard	80	100 ~ 250
BuyukipakYuli Metro	Standard	80	200 ~ 500
Gospitalniy Block	Standard	80	250 ~ 500
Rabochiy Gorodok	Standard	80-150	300 ~ 800
Mukimi Street	Standard	150	300 ~ 500
Glinka Street	Standard	150	500 ~ 800
Darkhan	Euro standard	100	1,200
Akkurgan Street	Euro standard	150	1,000
Askiya Bazaar	Euro standard	150	1,200 ~ 2,000
Choyhona Salom	Euro standard	150	1,200 ~ 2,000
Grand Mir Hotel	Euro standard	150	1,200 ~ 2,000
Kunaeva	Euro standard	150	1,500
U. Yusupova Street	Euro standard	150	1,500
Sergeli	Euro standard	200	500
Lisunova	Euro standard	200	700
Nikitina Street	Euro standard	250	2,000
Babur Street	Euro standard	250	2,500
Ivlieva Street	Euro standard	300	2,000 ~ 3,000

자료 : www.uzbek.co.kr 참조

- 타슈켄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다음과 같음.

〈표 VI-7〉 타슈켄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위치	인테리어 여부	면적	건축자재	가격(달러)
Pereushka	No finishing	140	Concrete	16,000
Lakhuti Street	No finishing	220	Brick	50,000
Severo-Vostok block	Standard	120	Brick	12,000
Visokovolnny block	Standard	120	Brick-Concrete	13,000
Chilanzar Metro	Eurostandard	100	Brick	25,000
Svetlana	Eurostandard	120	Brick-Concrete	30,000
Chekhova Street	Eurostandard	150	Brick	90,000
S.Azimova Street	Eurostandard	180	Brick	27,000
Lakhuti Street	Eurostandard	220	Brick	80,000

자료 : www.uzbek.co.kr 참조(2004년)

### (3) 우리나라 건설업체 진출 현황

-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수주 실적은 2006년 현재 총 3억 7천 5백만 달러로 2006년 들어 급격히 증가함.

〈표 VI-8〉 건설공사 수주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합계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금액	375,225	371,006	19	1,660	-28	2,446
건수	34	7	18	2	0	6

자료 : 해외건설협회

- 최근 2년간 신규 수주된 공사는 총 7건으로 다음과 같음.

〈표 VI-9〉 최근 2년간 신규 수주 공사

(단위: 천 달러)

업체	공사명	발주처	금액	공사기간
선엔지니어링	타슈켄트주 유카리치르치구역 아흐마드얏사비 숙박시설 건립공사 설계 및 시공감리 용역	상경포아	63	06/06/01 ~ 06/10/31
선엔지니어링	타슈켄트주 유카리치르치구역 아흐마드얏사비 사우나 건립공사 설계 및 시공감리 용역	상경포아	38	06/06/01 ~ 06/12/24
선엔지니어링	카슈켄트주 유카리치르치구역 아흐마드얏사비 요양원 건립공사 설계 및 시공감리 용역	상경포아	95	06/06/01 ~ 06/09/30
엠앤디이종합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지역 우르타 치르치 아동병원 개보수 공사 CM 용역	국제보건의료 발전재단	25	06/10/12 ~ 07/11/30
엠앤디이종합	2007년도 교육분야 시설공사 (4개사업) 건설관리(CM) 용역계약-우즈베키스탄 직업훈련	한국국제협력단	122	07/04/17 ~ 08/12/31
환경시설관리	부하라지역상수도공급네트워크 (Lot3)	Bukhara Water and WastewaterUtilities	1,074	06/04/20 ~ 07/2/10
환경시설관리	부하라지역상수도공급네트워크 (Lot2)	Bukhara Water and Wastewater Utilities	1,023	06/04/20 ~ 07/2/10

자료 : 해외건설협회